

# NH투자증권, GIST 외국인 유학생 위해 1천만 원 상당 쌀가공식품 기탁

- 12일(금) GIST에서 기탁식 개최... NH투자증권, '농심천심' 아침밥 먹기 운동 일환으로 식품 꾸러미 200개 전달... 국·공립대학 아침밥 지원 사업에 이어 GIST에는 두 번째 기탁
- 외국인 유학생 식생활 안정과 캠퍼스 적응에 실질적 도움 기대... 향후 상호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



▲ NH투자증권이 12월 12일(금) GIST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쌀가공식품을 기탁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NH투자증권 최홍석 ESG추진부장·김창수 광주금융1센터장·민유선 광주금융2센터장, (재)지스트발전재단 최은모 이사장, GIST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이수정 입학학생처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NH투자증권(주)(대표이사 윤병운)**이 12월 12일(금) GIST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쌀가공식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NH투자증권이 추진하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 차원에서 국·공립대학 26곳에 총 5억 3천만 원 규모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9월에도 GIST 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2천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번에 GIST에 전달된 5만 원 상당의 쌀가공식품 꾸러미 200개는 외국인 유학생의 식생활 안정과 캠퍼스 정착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꾸러미에는 백미·현미밥, 철원오대쌀 떡국, 멸치쌀국수, 쌀크릉지, 쌀약과 등 다양한 쌀 기반 식품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GIST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기탁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부 물품 전달은 오는 19일(금) 개최되는 외국인 졸업생 세미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재)지스트발전재단 최은모 이사장과 GIST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이수정 입학학생처장이 NH투자증권에서는 김창수 광주금융1센터장·민유선 광주금융2센터장·최홍석 ESG추진부장 등이 참석해 학생복지 확대와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주) 대표이사는 메시지를 통해 “유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은 안정적인 학업 생활의 기반”이라며 “NH투자증권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GIST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은 “외국인 유학생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 물품을 학생들의 건강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지스트발전재단 최은모 이사장은 “NH투자증권의 따뜻한 지원은 GIST 유학생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기업·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는 기업과 기관의 따뜻한 동행을 기반으로 교육·연구·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형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